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레드우드 처럼 대한민국 금융생태계에 가장 높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레드우드는 100m이상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입니다. 한 거목에는 61개의 가지와 200개 이상의 2차 몸통이 있고 임관 토양 220kg에 달하며, 잎의 총 무게는 1.5톤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생명체로 화창한 날씨 속에 묘목이 매년 1.8m씩 자랍니다. 그 높은 키를 지탱하기 위해 숲을 이룬 곁의 다른 레드우드들과 뿌리를 공유하며 300년간 100m 이상의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레드우드의 규모는 수목의 모든 기록을 갱신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레드우드 중에는 수령 2,000년을 넘긴 나무도 있습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색채가 고르며 도장이나 착색 효과가 좋아 무늬목, 목재 제품, 문이나 창틀, 벽판의 제작 등에 쓰고 부식에 강해 옥외용 가구 목재로도 쓰이는 등 인간에게 헌신하는 나무입니다.